

여수시 인구 3년만에 '반가운 증가'

4월말 기준 전달보다 166명 ↑
웅천 꿈에 그린 아파트 입주로
신도심 시전동 1677명 늘어
TF팀 등 강력한 인구시책 효과

전남 제 1 인구 도시 이자 남해안 대표 해양휴양관광도시 여수시가 반가운 인구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만이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여수시 인구가 3월 보다 166명 증가한 28만 2946(전남 인구 대비(187만 3183명) 15%)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증가 부분 중 타지역 전출입에서 176명이 증가했고 출생·사망이 포함된 자연 인구 부분은 30명이 감소했다.

또 등복·국외·해외이주·말소 등 기타 요인으로 2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에서는 웅천 한화 꿈에 그린 위 치한 신도심 지역인 시전동이 가장 많은 1677명이 늘었다.

도심과 달리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많은 여수돌산읍과 삼산면·한려동·울촌면·묘도 동도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대로는 60대 이상에서 153명 (0.09%)이 늘어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이끄는 중심 세대로 생산가능 인구가 분류된 15~64세 연령대에서 98명(0.03%)이 증가,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수 도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런 인구 증가세는 민선 7기 핵심정책의 일환으로 강력한 인구 증가 의지가 담긴 '부시장 책임 담당제'와 '전 직원 여수 시민 되기 운동' 등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여수시는 평가하고 있다.

여수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고재영 부 시장을 인구 정책 총괄 단장으로 관련 용

역을 추진 하는 등 인구 증가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성동법 기획경제국장 책임으로 전문 실무 팀장 24명이 참여한 인구유입 전문 TF팀을 구성,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 등 인구 증가를 위한 중점 사업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청년층 문화예술 활성화 등 주요 정책은 물론 전입 인센티브 홍보, 현장 이동민원실 운영 등 각종 시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시는 또 인구증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여수시인구시책지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인센티브 지원 대상 범위 세대편입과 세대 합가, 동거인 등을 포함할 방침이다.

특히 여수국가산단 주요 기업인 GS칼텍스와 LG화학의 6조원 대 공장 신·증설 투자에 따른 건설근로자 유입 등 타지역 인구의 여수 정착을 위한 대책마련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29일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된 한화 꿈에 그린아파트의 입주인 여수시 전입 효과도 인구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신도심 지역인 웅천 지구에 들어선 한화 꿈에 그린아파트는 지역에 처음 들어선 국내 1군 건설업체 브랜드로 오는 5월 말까지 총 196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 2일 기준 787세대가 이미 입주를 마쳤으며 마감 기간이 끝나면 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전남 제 1의 도시인 여수의 자긍심과 도시 발전의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부시장 책임제 등 실질적인 정책을 직원들과 한마음 한 뜻으로 적극 실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도시기반 확충, 정주환경개선과 교육 환경개선 등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소방서 전동시장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

여수소방서는 7일 시장 자율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동시장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서시장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권오봉 여수시장과 김용대 소방서장, 서시도의원, 의용소방대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동시장 전문의용소방대는 서시장과 전남시장, 중앙시장 등 상인 20여명으로 구성됐다.

대원들은 시장 순찰과 방화 예방활동을 비롯해 화재 시 인명 대피와 소방대 출동 전 초기진압 활동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로 시민 생명과 재산보호 임무를 맡게 된다.

특히 발대식에는 여수상와 롯데 케미칼, 여수청년회의소, 여수소방발전협의회 등 7개 관련 기관에서 호스릴 소화도원, 의용소방대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용호 여수소방서장은 "앞으로 주요 전동시장에서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해 낼 의용소방대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자율 예방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거북선축제 '관광 대박' ... 3일동안 39만명 방문

통제영 길놀이·드론 라이트쇼 인기
내년 문체부 문화축제 선정 기대

제53회 여수거북선축제가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 축제기간 관광 대박 효과를 이 끌어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여수 이순신광장과 선소 일원에서 펼쳐진 여수거북선축제 프로그램이 관광객과 시민들의 큰 인기를 끌며 성료 됐다.

거북선 축제위원회는 축제 3일 동안 39만 16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통제영길놀이가 펼쳐진 지난 3일에만 11만 7600명, 4일 15만 4000명, 5일 12만명이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축제 기간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문화 행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과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특히 거북선 축제 대표 행사인 통제영 길놀이와 드론 라이트 쇼, 선소 패밀리 테마존이 인기를 끌었다.

올해 통제영 길놀이에는 여수석유화학고 취타대, 여수복놀이, 국제재마우호도시 대표단, 26개 읍면동, 9개 초등학교 등 53개 팀 4300여 명이 동참해 시민 참여형 대표 축제 위상을 높였다.

이와 함께 3일 이순신광장과 4일 선소에 서 열린 드론 라이트 쇼가 아름다운 여수



전국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이순신광장 일대에서 판옥선 행렬이 앞장선 통제영 길놀이가 펼쳐졌다. <여수시 제공>

밤하늘을 수놓으며 관람객의 탄성을 자아 냈다.

여수의 밤을 뜨겁게 달군 드론 100대는 이순신 장군, 거북선, 판옥선, 학익진, 첨자진 등 9가지 이미지를 형상화 했다.

특히 선소 패밀리 테마존은 체험 프로그램과 버스킹 공연, 어린이 인형극, 거북선 그리기·만들기, 청년·청소년 페스티벌 등을 즐기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와 함께 학동 선소상가 거리에서 열린 HOT ROAD 페스티벌은 축제 방문객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 밖에도 4일 거북선대교-이순신광장-돌산대교 앞 해상에서 어선과 해군 함정, 거북선 유람선 등 선박 44척이 전라좌수영 수군 출격과 승리 퍼레이드를 생생하게 재현했다.

또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임진왜란 당시 유적지 순례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 교육의

장도 제공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시민과 축제추진 위, 여수 경찰과 해경, 소방서 등 유관기관, 자원 봉사자 등 축제 관계자들이 한마음으로 관광 대박성과를 이뤄 냈다"며 "앞으로도 여수거북선축제가 지역과 전남 대표 축제를 넘어 문체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상의 38년만에 이전 추진 주목

여수상공회의소가 38년 만에 회관 이전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여수상의는 1981년 여수시 광무동에 6층 규모로 건립된 회관 건물을 최근 매각하고 본격적으로 이전 작업에 들어갔다.

여수상의 회관은 주차장이 부족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회관 건물의 주차장 규모는 지하 1층 16면, 지상 7면 등 23면에 불과해 회관을 이용하려면 주변 도로에 주차를 하거나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여수상의는 2000년대 중반부터 회관 이전 작업을 모았으며 최근 건물이 팔리면서 이전 작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1980대 초반 문을 연 여수상의는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갖춘 현대식 건물로 주목받았다.

80~90년대에는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층 대회의실이 예식장으로 쓰여 시

민의 사랑을 받았다.

1997년 여수시와 여천군, 여천시 등 3개 시군이 통합하면서 사전 이행 조항 가운데 하나로 여수시에 있던 상의 건물을 여천 지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전 예산이 없어 무산됐다.

여수상의는 회관 이전 적립금 90억원과 건물 매각대금 23억원 등 100여억원으로 새 건물을 짓기로 했다.

8일에는 여수상의 의원총회를 열어 이전 장소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전 장소로는 웅천지구와 삼동지구, 석창 4거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도 여수상의의 이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여수상의는 지역 상공인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이자 시민의 경제 교육 장소"라며 "접근성과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여수 시내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시, 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여수시가 '2018 지방공기업하수도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공기업공사 CED 리더십 포럼식 시상식에서 여수시가 행장안 전부장관 표창을 수상, 보통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

국 지자체 등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1년 동안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정책준수 등 전문 분야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얻은 성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여수시는 하수처리효율 개선과 고객만족도 조사 부분 등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우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필 제 190402-중-91648호]

진정한 난임의 극복은 임신의 소식이 아니라 건강한 아기의 출산입니다.

난임치료 | 시험관아기기술 | 남성난임 | 난자냉동 | 복강경수술

정효영 원장

의료진 | 최범채 김영미 정효영 오인경 최민영

062)368-1700 광천동 LG유플러스 옆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창밖 풍경

전원주택전경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